

敦煌研究院 所藏 建武四年本 <金剛寫經>의 眞僞問題

A Study on the 'konmu 4 year Manuscript book of *Diamond-Sutra*'
at Academy of Dun-hung in China

송 일 기 (Song, Il-Gi)*

◁ 목 차 ▷

- | | |
|----------------------------|---------------------------------|
| 1. 問題提起 | 3.1 敦煌寫經과의 비교 |
| 2. 敦煌研究院藏 建武本 <金剛寫經>의 特徵 | 3.2 房山石經과의 비교 |
| 2.1 傳來의 經緯 | 3.3 大藏經本과의 비교 |
| 2.2 形態의 特徵 | 4. 結言 : 敦煌研究院藏 建武本 <金剛寫經>의 眞僞問題 |
| 2.3 書體의 特徵 | <參考文獻> |
| 3. 敦煌研究院藏 建武本 <金剛寫經>의 校勘分析 | |

< 초 록 >

이 연구는 현재 중국의 둔황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건무4년본 <금강사경>의 진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둔황사경·방산석경·역대대장경에 들어 있는 금강경과의 경문의 내용을 교감하여 비교한 결과, 이 건무본 금강사경은 위사경임이 밝혀졌다.

要語 : 금강반아바라밀경, 금강경, 금강사경, 위사경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서지학

접수일: 2004년 9월 6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authenticity of the script of *Keum-kang-kyong* (金剛經 Diamond Sutra), Kunmubon(建武本) in Academy of Don-hang.

This Kunmubon(建武本), the script of *Keum-kang-kyong* (金剛經 Diamond Sutra) was found as a forgery by counterchecking the contents of the manuscript of Dun-hang(敦煌), Pangsang(方山) stone manuscripts, and Tripitakas(大藏經).

K C I

1. 問題提起

근래 필자는 익산 王宮塔에 施納되었다가 지난 1965년에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른바 ‘金紙金剛寫經’에 대한 연구를 수년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수 천권에 이르는 중국의 敦煌寫經을 비롯하여 한·중·일의 刊本 金剛經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련의 논문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중국 蘭州에서 발행된 『甘肅藏敦煌文獻』에는 建武 4(497)년에 寫成된 금강경이 돈황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건무 4년은 六朝의 중기시대로 우리나라 백제 東城王 19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무렵 백제는 일찍이 중국 남조시대의 濟와 梁나라 사이에 밀접한 교류 사실이 여러 史書에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혹 왕궁탑의 〈金紙寫經〉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없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이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외형적 특징으로 卷首 및 卷尾에 있는 經題끝에 ‘卷一百三十六’이란 卷次表示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돈황본 금강사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계의 기재방식이란 점에서 첫째의 의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오래된 육조시대의 사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경의 서체에서 필자의 所見으로는 전혀 六朝風의 筆意를 느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근래에 서예계에서 통용되는 隸書의 필의가 남아있는 八分體로 쓰여진 사경으로 보여 졌다. 돈황에서 발견된 六朝寫經은 중국의 서북부에 위치하는 지역적 환경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毛筆보다는 葦筆(갈대펜)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¹⁾. 따라서 起筆處의 날카로움과 收筆處의 둔중함이 隋나라 이전에 쓰여진 육조사경의 전형적인 서체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상치된다는 점이 둘째의 의문이다.

한편 필자의 그 동안 사경을 감식한 경험으로는 육조로부터 수·당대에 이르는 돈황사경에는 몇 글자에서 독특한 字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

1) 藤枝晃, 『文字の文化史』(東京: 岩波書店, 1971), pp.192~200.

대, 이러한 特異字에는 ‘願·能·正·足·因·隱·定·亦·无’字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글자들에서 바로 특이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무4년본 금강사경에서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寫經體字²⁾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셋째의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점은 돈황석실 藏經窟 개봉 이후 진행되었던 일련의 作態로 말미암아 그간 일본 학계에서의 돈황사경에 관한 연구결과, 京都博物館에 수장되어 있는 돈황사경 중 85%에 이르는 상당수가 僞寫經이란 충격적인 발표²⁾가 있었던 사실도 상기되어 더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필자의 다른 논문 집필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敦煌研究院 所藏 建武4年本 金剛般若波羅蜜經>(이하 ‘建武本’으로 약칭함)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다. 이에 돈황석실에서 발견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敦煌寫經>, 방산의 운거사에 보장되고 있는 <房山石經> 중에 금강경의 최선본을 선정하고, 현존 최고의 목판본 금강경(咸通 9年 : 868年刊)으로 알려진 <咸通本>, 그리고 중국의 歷代大藏經 및 高麗再雕大藏經 중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경을 대상으로 문헌학적 교감을 실시하여 경문의 변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외형적 특징에서 의문시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아울러 이를 근거로 건무본이 과연 육조시대의 사경인지 그 眞僞 여부를 가리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경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경의 전래과정을 살펴야 하고, 다음으로는 본문 내용의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경에 사용된 紙質 및 墨色을 분석하고, 또한 사경체의 시대적 특징 서체를 선별하는 감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대상 사경의 실물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지질부분만은 이미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2) 赤尾榮慶, 「關於僞寫本的存在問題」, 『敦煌文獻論集』, p.43.

2. 敦煌研究院藏 建武本 〈金剛寫經〉의 特徵

2.1 傳來의 經緯

중국 돈황 소재의 敦煌研究院에는 권말에 ‘建武四年’의 寫成記가 기재되어 있는 〈金剛寫經〉 1권(敦研323)이 수장되어 있는데³⁾, 금강경을 쓴 현존 사경 중 가장 온전한 六朝寫經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경은 20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했던 張維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수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原所藏者인 張維는 甘肅 臨洮人으로 1889년에 출생하여 1950년에 사망하였는데, 字는 維之이며 別號는 印記에 보이는 鴻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이 해방되기 직전에 甘肅省 政務廳長과 參議會長 등의 고위직을 역임하고, 敦煌藝術研究所의 창립에 참여했던 인물로 소개되어 있다. 이 무렵 그가 소장하고 있던 돈황사경류는 대부분 돈황연구원과 상해박물관에서 입수하여 分藏되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⁴⁾. 그런데 현재 상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돈황사경류의 상당부분이 위사경으로 알려져 있어, 동일한 원소유자로부터 입수된 건 무본 또한 자못 의심스럽다.

2.2 形態的 特徵

이 금강사경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는 『甘肅藏敦煌文獻 第2冊』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敍錄〉의 해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서록의 해제에 의하면, 이 사경은 卷軸裝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가 540.3cm로 한 張의 길이 45cm이며, 전체 11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紙幅 24.7cm이며 행사이의 간격은 1.6cm로 소개되어

3) 이 〈金剛寫經〉 전문이 『甘肅藏敦煌文獻 第2冊』(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9.), pp.16~23에 영인 수록되어 있음.

4) 이러한 내용은 『甘肅藏敦煌文獻 第2冊』(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9.), pp.304~305의 敍錄에 수록되어 있음.

있다. 각 장은 27行으로 한 행은 17字이며, 전체는 315행으로 되어 있다. 絲欄은 烏絲欄으로 밝혀 있으나, 영인본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리고 紙質은 白麻紙로 밝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마지는 돈황사경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 사경은 장의 16행 이하 한 장 분량 정도는 殘缺이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권수에는 ‘金剛般若波羅蜜經卷(一百三十)六’으로 經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首題 중에 ‘卷136’이란 卷數 표시가 보이고 있어 의문을 남기고 있다⁶⁾. 그리고 尾題 또한 ‘金剛般若波羅蜜□卷一百三十六’으로 되어 있는데, 서록의 해제에도 ‘不知何故’라고 쓰여져 있다. 이는 그 어느 부분보다 외형적 특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卷頭書名 아래의 오른편에 所藏印이 2顆가 날인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돈황사경에는 소유를 의미하는 이러한 장서인이 날인된 사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藏書印의 印記는 陰文이 ‘隴人/張維’이며, 陽文이 ‘鴻汀’으로 판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경의 末尾에는 ‘建武四年歲在丁丑九月朔日 吳郡太守張懷敬造’라는 寫成記가 수록되어 있어, 중국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금강사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寫成記에 기록된 ‘建武’라는 年號를 연표에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중국에서 무려 6회에 걸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 5) 沈隅俊선생은 지난 2001년에 중국의 돈황을 직접 방문하여 감숙성내에 현존하는 敦煌文獻의 紙質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표로 작성해 놓은 숨은 업적이 보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돈황 사경은 일반적으로 백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黃麻紙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沈隅俊, 『無垢淨光經 傳入與否攷』(서울: 삼희출판사, 2002), pp.43~49參考).
- 6) 금강경은 본래 <大品般若經>으로 불리는 불경 가운데 제9회 <能斷金剛分>에 들어 있는 제577편을 독립시켜 單卷本으로 편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권수표시가 없으나, 간혹 사경의 경우에 ‘卷一, 또는一卷’이란 물리적 분량이 표시되는 사례가 있다. 이 불경은 비록 적은 분량의 경전이지만 반야부 경전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있으며, 불교 반야사상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한역본으로 鳩摩羅什, 菩提流支, 眞諦 등이 번역한 <金剛般若波羅蜜經>이 있고, 達摩笈多가 번역한 <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 玄奘이 번역한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과 義淨이 번역한 <佛說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등 6譯本이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전역에는 鳩摩羅什譯本이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① 後漢	AD 25~56	④ 後趙	AD 335~348
② 晉	AD 304	⑤ 西燕	AD 386
③ 東晉	AD 317~318	⑥ 南齊	AD 494~498

이처럼 중국에서는 建武라는 연호는 6회에 걸쳐 사용되었으나, 이 중에 금강경이 중국에 전래되어 최초로 번역된 鳩摩羅什譯本이 AD 402년 이후에 중국에서 漢譯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어, ①~⑤의 경우는 한역 이전의 시기의 연호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경에 쓰인 ‘建武四年’은 바로 南齊의 明帝가 사용한 年號로서 AD 497년으로 換算되며, ‘丁丑’이란 干支 와도 일치되고 있다. 이 해는 중국의 남조와 긴밀한 교류가 있었던 백제의 東城王 19년에 해당되는 연대이다.

2.3 書體의 特徵

이처럼 돈황연구원에 소장된 건무본 금강사경에는 건무 4(497)년에 쓰여졌다는 사성기가 기록되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래된 육조시대의 사경임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所見으로는 전혀 六朝風의 筆意를 느낄 수 없는 隸書體가 가미된 八分體로 보였다. 그리고 돈황에서 발견된 六朝寫經은 지역적 환경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毛筆보다는 葦筆(갈대펜)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육조사경체는 起筆處의 날카로움과 收筆處의 둔중함이 隋나라 이전에 쓰여진 육조사경의 전형적인 서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경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特異字가 있는데, 예컨대 이러한 특징은 ‘願·能·正·足·因·隱·定·亦·无字’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경에서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寫經體의 特異字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점은 시대성을 벗어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겠다. 一例로 ‘无’字의 경우 대부분 古字인 ‘无’자로 쓰여지고 있어 古寫經을 감식하는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이나,

여기에서는 모두가 ‘無’자로 쓰여져 있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건무본의 전래경위를 비롯하여 首尾의 서명에 나타난 경제의 권수표기의 특이한 점, 이 사경을 쓴 서체가 널리 알려진 육조사경의 서체와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육조 및 수당사경에 特異字로 쓰이는 자체가 모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의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경의 본문의 변화양상은 과연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을 것인지 그 여부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敦煌研究院藏 建武本 <金剛寫經>의 校勘分析

3.1 敦煌寫經과의 比較

지난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서북부 鳴沙山의 敦煌石室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중국 사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남기고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법화경이 아닌 가 한다. 현재 중국의 국가도서관인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분량을 『敦煌寶藏』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금강경은 冊78에서 冊83에 이르는 6책의 분량이며, 部數는 北3500號로부터 北4436號에 이르는 937 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영국의 스타인(Stein)과 프랑스의 펠리오(Pellio) 蒐集本에 또한 상당량의 돈황사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일부 박물관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많은 금강사경 중에 全文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경은 매우 드물며, 또한 寫成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경은 더욱 희귀하다. 그리하여 이처럼 많은 금강사경 중에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중국국가도서관(前 북평도서관)소장의 937부 가운데 9종(北3500호~3508호)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비록 殘卷이나 寫成記가 수록되어 있어 사성연대가 확실한 스타인 수집본 斯36호, 斯87호 2종을 합쳐 모두 11종이다. 이 중 여기에서는 6종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대

비 교감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敦煌寫經과의 校勘對比

校勘位置 (張行字)	建武本 校勘對象文字	스타인 蒐集本 唐代寫經		中國國家圖書館 所藏 唐代寫經			
		672年寫 (斯36)	690年寫 (斯87)	no. 3502	no. 3503	no. 3504	no. 3507
01-01-09	金剛般若波羅蜜經 卷一百三十六	·	·	·	·	·	·
01-10-17	菩提心云何應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04-16-10	實無不來	·	·	·	·	·	·
05-3行下	[所得不不也]	·	·	·	·	·	·
05-20-16	卽非般若波羅蜜是名般若波羅蜜	·	·	·	·	·	·
06-05-09	世尊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有經文	·	有經文	有經文	·	·
07-02-03	卽非第一	·	·	·	·	·	·
09-13-08	三菩提心者	·	·	·	·	·	·
11-07-16	於意云何如恒	·	·	·	·	·	·
11-10-04	如是沙等恒河	·	·	·	·	·	·
12-10-08	“尔時~衆生”62字	·	·	有經文	·	·	·
12-16-07	佛言如是	·	·	·	·	·	·
13-01-12	卽非善法	·	·	·	·	·	·
13-06-13	不及一百千萬	·	·	·	·	·	·
13-13-09	卽非凡夫是名凡夫	·	·	·	·	·	·
14-05-08	諸法斷滅[相]	·	相	·	·	·	相
14-07-17	世界七寶持用	·	持用	·	·	·	·
14-09-13	功德何以故須菩提	·	·	·	·	·	·
15-05-17	我所說義不不也	·	·	·	·	·	·
15-14-15	發菩提心者	薩	薩	薩	薩	薩	薩
15-22-10	信受奉行	持	行	行	持	行	行
15-23-08	金剛般若波羅蜜 卷一百三十六終	·	·	·	·	·	·

위의 교감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首尾의 經題에 卷136'이란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 卷首題가 온전한 敦煌사경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상이한 차이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권수표시는 敦煌연구원 소장의 건무본 金剛사경에만 나타난 유일한 사례이다. 이 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張1의 ‘云何應’ 3자는 돈황사경에는 모두 ‘應云何’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장14의 ‘相과 持用’은 돈황사경에서는 스타인본 斯 87의 한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사경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장15의 ‘提’자는 돈황사경에는 모두 薩차로 쓰여져 있어 建武本の 誤字로 생각되며, ‘行’자는 ‘特’자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글자가 通用字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장12의 ‘余時~衆生’ 62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다. 건무본에는 이 내용이 실려 있으나, 돈황사경은 국가도서관의 3502호에만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사경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미 이 부분의 문장의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나라 靈幽법사에 의해 822년에 금강경의 異譯本인 菩提流支 漢譯本(509年譯)에 의거하여 補入된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문장의 출입 여부에 따라 사경의 筆寫年代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건무본은 잠정적으로 822년 이후에 보완된 刊寫本을 저본으로 쓰여진 사경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경문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국가도서관의 3502호 돈황사경 또한 아마 822년 이후에 쓰여진 唐末에 쓰여진 후기 사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건무본 금강사경과 중국의 돈황석실에서 발견된 돈황본 금강사경류와 대비해 본 결과, 敦研藏 建武本 <金剛寫經>은 寫成記에 나타난 建武 4년 즉, 497년에 쓰여진 육조사경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일일 듯 싶다.

3.2 房山石經 과의 비교

중국 房山の 雲居寺에는 石刻大藏經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른바 ‘房山石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房山石經은 法難으로부터 佛經의 수호를 목적으로 隋代로부터 刻經이 시작되어 明末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이 房山石經本 중에 鳩摩羅什 譯本으로 비교적 전문이 완전한 것으로는 唐나라 측천무후 재위초기인 垂拱

1(685)년에 조성된 石經을 비롯하여 8세기 초반(704年 직후)에 刻經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종과 당나라 玄宗이 직접 注疏하여 天寶 1(742)년에 새긴 御注本 등 4종을 비교 대상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868년에 간행된 咸通本 목판본 금강경과를 교감하여 후미에 부기하여 비교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교감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房山石經과의 校勘比較

校勘位置 (張行字)	建武本 校勘對象文字	房山石經				咸通本 (868 年刻)
		685 年刻 (2-42)	704 年刻 (2-55)	8c 初刻 (2-57)	742 年刻 (3-100)	
01-01-09	金剛般若波羅蜜經 卷一百三十六	·	佛說	·	·	·
01-10-17	菩提心云何應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04-16-10	實無不來	·	·	·	·	·
05-3 行下	[所得不不也]	·	·	·	·	·
05-20-16	卽非般若波羅蜜是名般若波羅蜜	·	·	·	·	·
06-05-09	世尊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07-02-03	卽非第一	·	·	·	·	·
09-13-08	三菩提心者	·	·	·	·	·
11-07-16	於意云何如恒	·	如	·	·	·
11-10-04	如是沙等恒河	·	·	·	·	·
12-10-08	“尔時~衆生”62字	·	·	·	·	有經文
12-16-07	佛言如是	·	·	·	·	·
13-01-12	卽非善法	·	·	·	·	·
13-06-13	不及一百千萬	·	百	百	百	百
13-13-09	卽非凡夫是名凡夫	·	·	·	·	·
14-05-08	諸法斷滅[相]	·	·	·	·	相
14-07-17	世界七寶持用	·	·	·	·	持用
14-09-13	功德何以故須菩提	·	·	·	·	·
15-05-17	我所說義不不也	·	·	不也	·	·
15-14-15	發菩提心者	薩	薩	薩	薩	薩
15-22-10	信受奉行	行	持	行	行	行
15-23-08	金剛般若波羅蜜 卷一百三十六終	·	佛說	·	·	·

위의 교감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首尾의 經題에 ‘卷 136’이란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 卷首題가 온전한 방산석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2-55의 석경에서는 ‘佛說’2자가 관청으로 첨입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청은 돈황사경에서도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왕궁답에 시납되었던 <金紙金剛寫經>의 경제에 기재되어 있으며, 淸州本 금강경의 後尾題에서도 기입된 사례가 보이고 있으나, 그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제에 권수표시가 기입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張1의 ‘云何應’ 3자는 방산석경에는 모두 ‘應云何’로 되어 있어 건무본의 誤記로 생각된다. 그밖에 장11의 ‘如’자, 장14의 ‘持用’과 장15의 ‘不也’는 전체적으로 방산석경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건무본이 후대에 보입한 윤문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장15의 ‘提’자는 방산석경에는 모두 ‘薩’자로 쓰여져 있어 建武本의 誤字로 생각되며, ‘行’자는 ‘持’자도 일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글자가 通用字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12의 ‘余時~衆生’ 62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돈황사경과의 비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나라 靈幽법사에 의해 822년에 금강경의 異譯本인 菩提流支 漢譯本(509年譯)에 의거하여 補入한 것으로 있다. 따라서 8세기 전반 이전에 조성된 방산석경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이 내용이 수록된 건무본이 문제의 사경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중국의 방산석경⁷⁾과 대비해 본 결과, 건무본과는 전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무본은 후대에 여러 차례 潤文되어진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근래 이 곳에 수장되어 있던 石刻大藏經은 『房山石經』 30책으로 영인 보급되어 이 방면의 연구자에게 특히 주목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모두 15종의 金剛石經이 수록되어 있으나, 역시 전문이 온전히 수록된 石經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 石經本은 대략적으로 刻成年代를 추정할 수 있어, 본문을 상호 대비 교감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3.3 大藏經과의 비교

인도에서 불교경전이 결집이 시작된 이래로 구법스님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어, 서역 및 중국의 많은 스님들에 의해 이를 한문으로 한역하는 역경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경사업은 대략 9세기 무렵에 대부분의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되었으며, 일부 불경은 중역 또는 신역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한역의 순차에 따라 입장되어 이른바 寫本大藏經이 만들어졌으며, 북송시대인 10세기 후반에는 이를 목판에 판각하여 인출한 刊本大藏經이 출현하였다. 그후 이러한 대장경의 雕造사업은 중국의 이웃나라인 고려와 거란 등지에서도 거의 동시에 刻成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서적사상 마침내 본격적인 인쇄본시대로 이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송나라 開寶 연간 이후로 중국에서는 각 역대왕조마다 대장경을 수차 판각하는 풍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진족이 건국한 금나라는 北宋板을 저본으로 <趙城金藏>을 복각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 이 조성금장을 저본으로 하고, 일부 逸失된 부분은 고려대장경으로 보완하여 영인한 <중화대장경>이 보급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영인본에 수록된 각 불경의 끝에는 중국에서 조성된 역대대장경과의 교감한 교감기가 수록되어 있어 異本과의 對比에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건무본 금강사경과 중화대장경에 수록된 금강경의 교감기 중에 資福藏・磧砂藏・明南藏・徑山藏・淸龍藏 과 교감한 내용을 대비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나타나며, 참고로 중국의 역대대장경과의 비교를 위해 高麗藏本을 부기하였다.

〈표 3〉 大藏經과의 校勘比較

校勘位置 (張行字)	建武本 校勘對象文字	中國大藏經					高麗 再雕藏
		資福藏	磧砂藏	明南藏	徑山藏	清龍藏	
01-01-09	金剛般若波羅蜜經 卷一百三十六	·	·	·	·	·	·
01-10-17	菩提心云何應	·	·	云何應	云何應	云何應	應云何
04-16-10	實無不來	·	·	不	不	不	·
05-3 行下	[所得不也]	·	不也	不也	不也	不也	·
05-20-16	卽非般若波羅蜜是名般若波羅蜜	有經文	有經文	·	·	·	·
06-05-09	世尊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07-02-03	卽非第一	·	·	·	卽	卽	·
09-13-08	三菩提心者	心	心	心	心	心	·
11-07-16	於意云何如恒	·	·	如	如	如	·
11-10-04	如是沙等恒河	·	·	沙	沙	沙	·
12-10-08	“尔時~衆生”62字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12-16-07	佛言如是	佛言	佛言	佛言	佛言	佛言	·
13-01-12	卽非善法	·	·	·	卽	卽	·
13-06-13	不及一百千萬	·	百	百	百	百	百
13-13-09	卽非凡夫是名凡夫	是名凡夫	·	·	·	·	·
14-05-08	諸法斷滅[相]	·	·	·	·	·	相
14-07-17	世界七寶持用	持用	·	·	·	·	·
14-09-13	功德何以故須菩提	何以故	何以故	何以故	何以故	何以故	·
15-05-17	我所說義不也	不也	不也	不也	不也	不也	·
15-14-15	發菩提心者	薩	薩	薩	提	薩	薩
15-22-10	信受奉行	持	行	行	行	行	行
15-23-08	金剛般若波羅蜜 卷一百三十六終	·	·	·	·	·	·

위의 교감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首尾의 經題에 卷136'이란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역대대장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첫 번째 의문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張1의 '云何應 3자의 경우는 資福藏과 磧砂藏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으며, 이하의 明南藏·徑山藏·清龍藏은 건무본과 동일하고, 오히려 高麗藏에만 應云何'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 본 돈황사경 및 방산석경에는 모두 고려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건무본과 중국대장경의 精深치 못함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대비 결과만으

로 보아서도 건무본은 중국대장경 중 하나를 저본으로 후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은 다음의 장4 ‘不’의 경우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11의 ‘如’와 ‘沙’, 장14의 ‘持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심증을 굳게 한다. 그 밖에도 앞에서 살펴 본 돈황사경 및 방산석경에서는 상호간에 많은 차이점이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역대 대장경본과의 비교에서는 대체로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예: 心・佛言・百・何以故・不也・行的 경우). 그런데 장15의 ‘提’자의 경우는 徑山藏을 제외하고 모두 ‘薩’자로 쓰여져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경산장에 수록된 금강경을 저본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리고 장12의 ‘亦時 ~衆生’ 62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고려장을 포함하여 중국의 역대대장경에 모두 이 부분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건무본이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경을 저본으로 寫成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다.

이상에서 한국 및 중국의 역대대장경과 대비해 본 결과, 건무본은 중국의 역대 대장경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건무본은 중국 역대대장경본 중에 하나를 저본으로 전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 ‘徑山藏’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4. 結論：敦煌研究院藏 建武本 <金剛寫經>의 眞僞問題

이상에서 建武本 <금강사경>의 경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敦煌寫經本, 房山石經本, 歷代大藏經本과의 교감을 통해 대비해 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교감 분석한 각 비교영역의 대상자료에서 대표적 금강경 1종씩을 선정하고, 咸通本과 高麗藏本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비교를 시도한 결과, 다음의 <표 4>와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다.

〈표 4〉金剛經 諸本の 綜合校勘 比較

校勘位置 (張行字)	建武本 校勘對象文字	스타인本 敦煌寫經 672年寫	房山石經 685年刻	咸通本 (868年刻)	高麗 再雕藏 (13c 前)	中國 徑山藏
01-01-09	金剛般若波羅蜜經 卷一百三十六	·	·	·	·	·
01-10-17	菩提心云何應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應云何	云何應
04-16-10	實無不來	·	·	·	·	不
05-3 行下	[所得不不也]	·	·	·	·	不也
05-20-16	卽非般若波羅蜜是名般若波羅蜜	·	·	·	·	·
06-05-09	世尊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07-02-03	卽非第一	·	·	·	·	卽
09-13-08	三菩提心者	·	·	·	·	心
11-07-16	於意云何如恒	·	·	·	·	如
11-10-04	如是沙等恒河	·	·	·	·	沙
12-10-08	“尔時~衆生”62字	·	·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12-16-07	佛言如是	·	·	·	·	佛言
13-01-12	卽非善法	·	·	·	·	卽
13-06-13	不及一百千萬	·	·	百	百	百
13-13-09	卽非凡夫是名凡夫	·	·	·	·	·
14-05-08	諸法斷滅[相]	·	·	相	相	·
14-07-17	世界七寶持用	·	·	持用	·	·
14-09-13	功德何以故須菩提	·	·	·	·	何以故
15-05-17	我所說義不不也	·	·	·	·	不也
15-14-15	發菩提心者	薩	薩	薩	薩	提
15-22-10	信受奉行	行	行	行	行	行
15-23-08	金剛般若波羅蜜 卷一百三十六終	·	·	·	·	·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위의 종합교감표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앞에서 석경 및 간사본과의 교감을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부분으로 주목된 것은 당나라 영유법사에 의해서 822년에 ‘尔時~衆生’의 62자 부분이었다. 이에 62자의 補入 이 있었던 82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시기에 石刻 또는 刊寫된 문헌자료와의 비교를 주목하였다. 그 결과, 그 이전시기에 쓰여진 돈황사경과 석각된 방산석경에서는 62자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건무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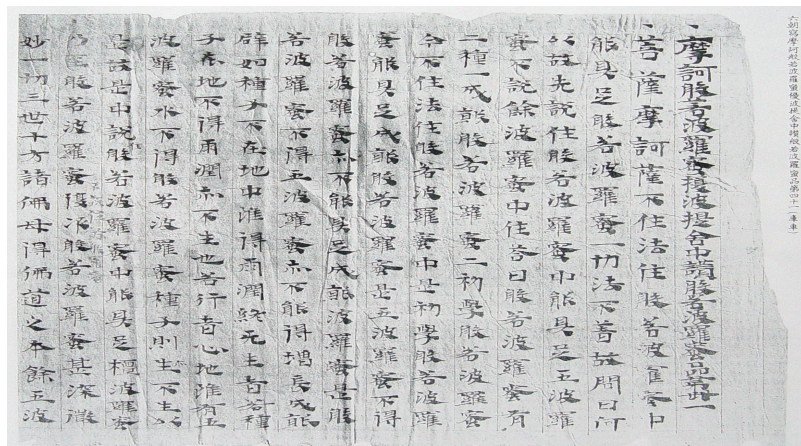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시기 12세기 이전에 간행된 함통본과 고려장과의 비교에서는 62자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건무본과는 다르게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으나, 중국대장경 중에 후대에 간행된 경산장과의 비교 결과는 62자 부분이 수록되어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건무본과는 대부분 일치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刻寫本과의 교감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돈황연구원에 소장된 建武本 <金剛寫經>은 건무 4년 즉, 497년에 쓰여진 사경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돈황사경이 발견된 이후인 20세기 전반에 중국대장경 중에 편입된 판본계통의 저본을 바탕으로 쓰여진 僞寫經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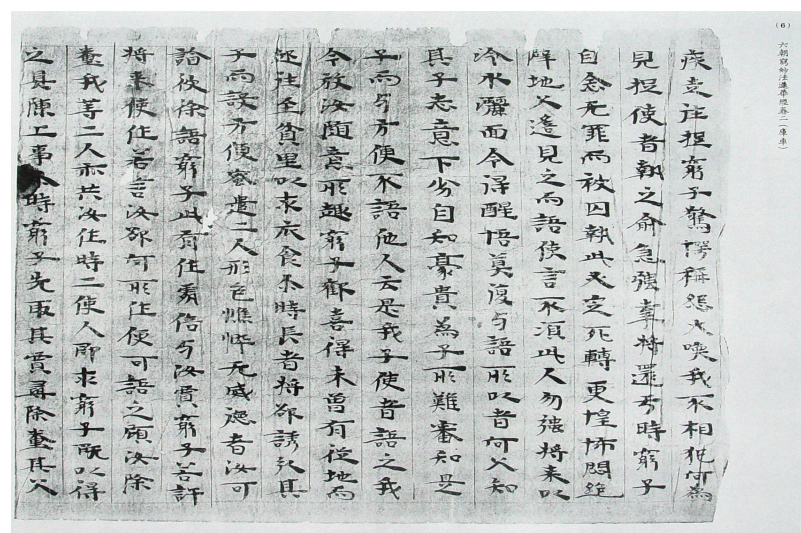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 『甘肅藏敦煌文獻』(冊2),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9.
- 藤枝晃, 『文字の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1971.
- 『房山石經』(全30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0.
- 『書道全集』(全26冊), 東京: 平凡社, 1967.
- 神田喜一郎, 『中國書藝史』, 서울: 不二, 1992.
- 『中華大藏經』(冊12), 北京: 中華書局,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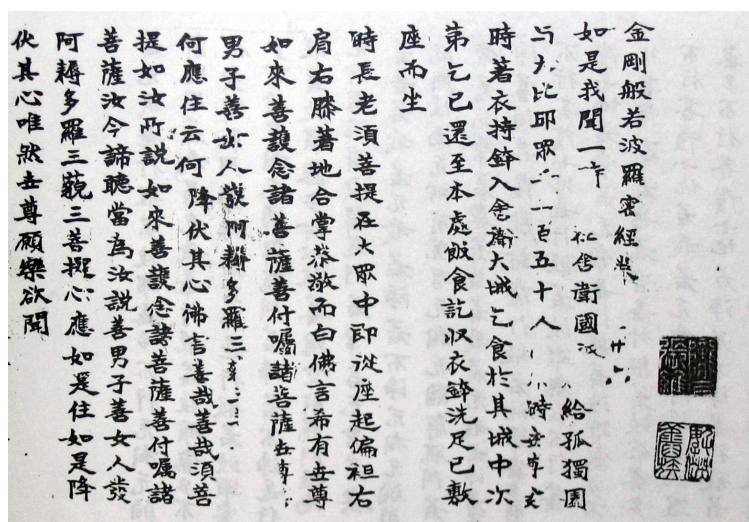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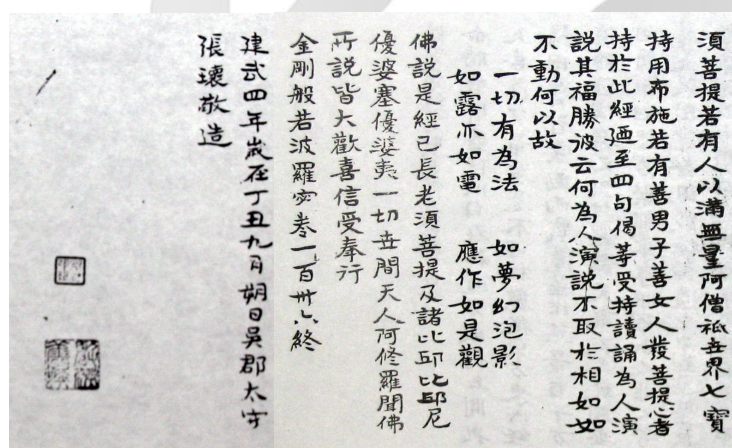
〈그림 1〉 六朝寫經 般若經



〈그림 2〉 六朝寫經 法華經



〈그림 3〉建武本 金剛寫經 卷首



〈그림 4〉建武本 金剛寫經 卷末 寫記

也。去尊如來不應以具足色身見何以故如
來說具足色身即非具足色身是名具足色
身。須菩提於意云何如來可以具足諸相見
不不也。去尊如來不應以具足諸相見何以
故如來說諸相具足即非具足是名諸相具
足。
須菩提於意謂如來作是念我當有所說法
莫作是念何以故若人言如來有所說法即
為謗佛不能解我所說故。須菩提說法者無
法可說是名說法。爾時慧命須菩提白佛言
去尊頗有眾生於未來去聞說是法生信心
不佛言須菩提彼非眾生非不眾生何以故
須菩提眾生眾生者如來說非眾生是名眾
生。
須菩提白佛言去尊佛說阿耨多羅三藐三菩
提為無所得耶。佛言如是如是。須菩提我於阿
耨多羅三藐三菩提迺至無有少法可得是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

〈그림 5〉建武本 靈幽法師 822年 62字 補入部分